

# 영원히 기억되는 어.린.이.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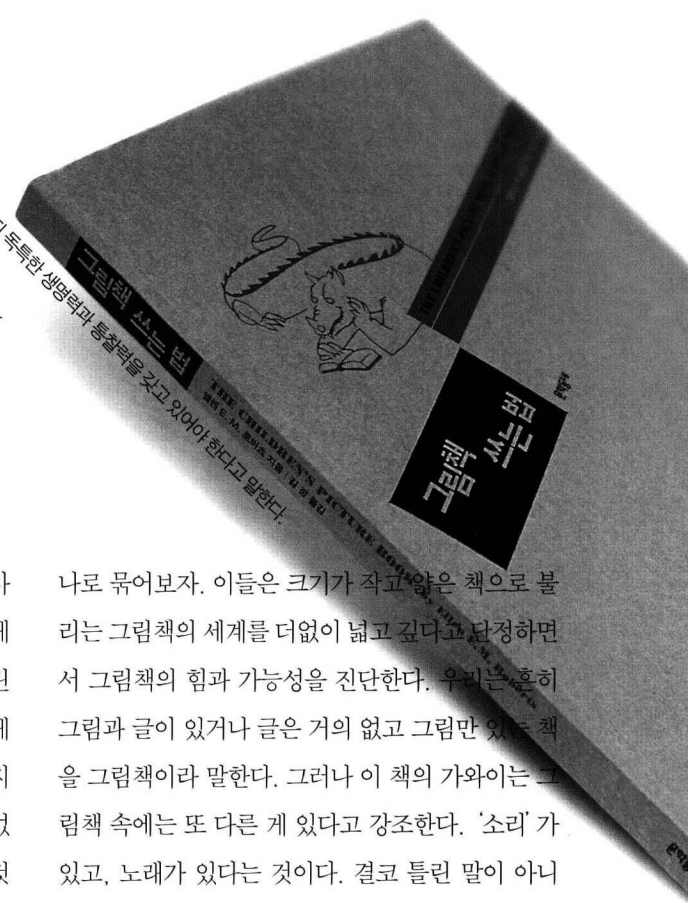
## 그 영원성의 비밀

어린이책에 관한 세 권의 책을 소개하기 전에 몇 사람의 연애담부터 꺼내놓겠다. 기자는 몇 사람에게 “옛 연인처럼 문득 떠올라 가슴을 설레게 하는 어린이책이 있는가” 물었다. 어떤이는 단번에 《꽃들에게 희망을》을 말했다. 애벌레들이 기어가는 그림은 “지금 봐도 충격적”이라고 덧붙였다. 어떤이는 《아낌없이 주는 나무》와의 추억을 떠올렸다. 자신이 가진 것을 아낌없이 내주는 나무를 보며 “나에게도 저런 친구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꿈을 꾸었다는 이야기다. 또 어떤이는 《집없는 아이》를 소개했다. 어린 시절 아버지가 스무 번도 넘게 읽어주셨던 구절들을 결코 잊지 못한다는 이야기도 덧붙였다. 책도 가지각색, 사연도 가지각색이다. 몇 장 안되는 작고 얇은 책이지만 어린이책만큼 길긴 생명력을 자랑하는 경우도 없다. 만화부터 시작해서 애니메이션, 심지어는 게임까지 다양한 이미지와 텍스트들이 경쟁자로 등장했지만 어린이책은 이에 지지 않고 참 오래도록 살아남았다. 어린이책은 어떤 생존능력을 갖고 있는 걸까. 어떤 마력을 갖고 있길래 이리도 사랑받고 회자되는 것일까.

《그림책의 힘》의 저자 셋은 그림책의 유혹에 홀딱 빠져버린 인물들이다. 이들의 고백은 이렇다. 임상심리학자 가와이 하야오는 《겨울눈 합창단》이라는 책을 보면 미소부터 짓는다. 갖가지 겨울눈 사진을 담은 이 책을 보면 유쾌해진다는 것이다. 야나기다 구니오의 그림책 사랑도 특별하다. 둘째 아들이 25세에 자살을 한 후 우울증에 빠져 지나다가 뒤늦게 만난 그림책. 우연히 서점에 갔다가 어린이 서가로 향한 그는 아들에게 읽어주었던 그림책을 펼치면서 ‘그림책의 포로’가 되어버린다. 그것은 가장 절망적일 때 만난 안식처가 된다. 마츠이 다다시는 자신을 재우기 위해 엄마가 읽어준 동화에 대한 기억들로 여전히 행복해한다. 세 사람의 공통점을 하

나로 묶어보자. 이들은 크기가 작고 얇은 책으로 불리는 그림책의 세계를 더없이 넓고 깊다고 단정하면서 그림책의 힘과 가능성을 진단한다. 우리는 흔히 그림과 글이 있거나 글은 거의 없고 그림만 있는 책을 그림책이라 말한다. 그러나 이 책의 가와이는 그림책 속에는 또 다른 게 있다고 강조한다. ‘소리’가 있고, 노래가 있다는 것이다. 결코 틀린 말이 아니다. 그림책의 주 독자인 아이들은 어른과는 다른 방법으로 그림책을 읽는다. 어른들은 “곰이 사과를 먹었다”고 설명하지만 아이들은 “곰이 사과를 먹어, 너무 신나서 노래 소리도 들리네”라고 반응한다. 읽고 보는 것 이상의 가치를 발견하는 것이다. 그것은 소리로 확장되고, 음악을 생산한다. 그러면서 하나의 세계를 완성해 나간다. 그것이 그림책의 ‘힘’ 중 하나다. 그림책은 읽는 게 아니라 누군가 들려주는 것이라고 말하는 저자들은 그림책을 “눈으로 그림을 보면서 귀로 문장을 들을 때의 신비로운 작용에 의해 형성되는 세계”로 표현한다. 오감으로 받아들이는 이야기라는 의미다. 이렇게 받아들인 세계니 누구도 그 느낌을 결코 쉽게 잊지 못한다. 저자들은 이 책이 영혼의 상처까지 치유하는 힘을 갖고 있다며 독자층을 성인까지 확장한다. 결국 0세 아이부터 100세 어른까지 누구나 공감하고 느낄 수 있는 모두의 책이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렇게 독자들에게 감흥을 안겨준 책은 어떤 사람이 쓰고, 어떻게 쓰는가. 궁금증을 나머지 두 책이 풀어준다. 두 책의 저자는 그림책계에서 이미 명성이 자자한 인물들이다. 《그림책 쓰는 법》의 엘렌 E.M.로버츠(이하 엘렌)는 20여 년 간 500여 권의 어린이책을 편집, 출간하면서 걸출한 작가들을 발굴한 미국의 그림책 대모이고, 《어린이책 작가되기》의 작가들 역시 유명 편집 컨설턴트와 도서홍보 담당자로 이름을 날린 인물들이다. 엘렌



은 그림책을 읽는 데 10분 이상을 들이는 '어른'이다. 어른들 대부분은 "귀엽군, 그림 좋네"라면서 2분 만에 그림책을 덮어버리지만 그는 '이렇게 알박한 책이 이렇게 풍부한 표현력을 갖고 있다니' 감탄하며 10분 이상의 시간을 들인다. 그는 어린이책 작가는 논리성이나 경험, 뛰어난 감각을 가진 독특한 생명력과 통찰력을 갖고 있어야 한다고 말한다. 그들에게는 몇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 가령 새로운 구두를 샀을 때 "새로 산 구두예요"라고 말하면서 구두를 사기까지의 복잡했던 과정들을 조목조목 이야기하는 인물들이 대부분이라는 것이다. 그만큼 그림책 작가는 친진난만하며 소박하고 주변의 사소한 일에도 흥미를 갖는다. 아이 같은 감성을 가져야 그림책을 쓰고 아이들과 조우할 수 있다는 의미다. 《어린이책 작가되기》는 그림책뿐 아니라 어린이책 전반을 이야기한다. 특히 '쓰는 법'에 머물지 않고 출판에 대한 자세한 정보까지 꼼꼼하게 담았다. 작가 지망생들이 어떻게 작가로서 첫걸음을 내디디야 하는지, 출판사는 어떻게 찾는지 등부터 성공을 위해 작가들이 극복해야 하는 여러 가지 문제를 친절하게 알려준다. 아이디어를 어떻게 수집하고 글을 어떤 방향으로 다듬어야 하는지 등 기술적인 문제보다는 어떻게 하면 책을 출판할 수 있는지에 관한 정보를 매우 자세하게 기술했다. 두 책의 한목소리는 이렇다. 막연하게 어린이책 작가가 되려고 하지 말라는 것. 작가로서의 촉각을 늘 잠재우지 않아야 그 꿈을 이룰 수 있다. 오래도록 여운을 남기고 회자되는 책은 쉽게 나올 수 없다는 걸 실감하게 해주는 책들이다.

누가 어린이책을 '쉽다'고 말했는가. 아이들 책은 이야기가 짧고 부피가 작은 것은 사실이나 짧은 이야기를 만드는 게 결코 쉬운 것은 아니다. 읽은 후 독자들의 반응 역시 소설을 읽고난 반응에 버금

가는 경우가 많다. 심오함, 참신함, 감동과 교훈, 익살스러움을 즐기는 사람들부터 "그 주인공 잊을 수 없어. 그 장면이 떠오르네"라고 말하는 이들까지 읽은이의 반응도 다양하다. 그리고 보면 최소의 정보를 통해 최대한의 감동을 전한다는 데서 어린이책은 매우 경제적인 책이다.

세 권의 캐릭터는 제목에서부터 극명하게 드러난다. 《그림책의 힘》은 제목 그대로 그림책의 '과워'를 말하고 있고, 나머지 두 권은 어린이책 작가가 되는 방법을 소개하는 안내서다. 그 중 한 권은 그림책에 한정되어 있고, 또 한 권은 어린이책에 한정되어 있다. 물론 공통 주제도 있다. 저자들은 어린이책의 영원성을 강조한다. 그 어떤 경쟁자들이 등장해도 끝까지 우리의 기억 속에 남을 것이라는 전제하에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 이 책들이 모두 서양책이라는 공통점도 있다. 최근에 와서 우리나라에도 그림책이며 어린이책과 관련된 담론들이 형성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시작에 불과하다. 그나마 어린이책 강국에 사는 일본인이 '최근에 가장 큰 가능성을 보이고 있는 게 한국의 그림책 《그림책의 힘》이라고 언급한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빼놓은 이야기가 있다. 기자는 그림책보다 '주말의 명화'를 더 좋아하며 썼지만 "당신에게도 첫사랑과 같이 기억나는 어린이책이 있으세요?" 물을 때 자신있게 내놓을 책 한 권 정도는 있다. 《아낌 없이 주는 나무》와 '레오 리오니'의 그림책이다. 우리 국내 작가의 그림을 언급하지 못해 미안하지만 이 책들이 머리가 크면서 읽은 그 어떤 소설보다, 시 구절보다 더 간절히 기억날 때가 많다. **김정연**

김정연 기자

